시민들과 현장 소통 이어가

강임준 군산시장, 열린 톡&톡… 시민호응 줄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이 시민들과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정을 실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고정된 일시와 장소가 아닌 현장에서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톡&톡'을 운영해 전방위적인 시민 소통을 강화했다.

시민 의견이 시정에 신속히 반영되는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펼쳤으며, 강 시장은 항상 '소통'을 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직접 민생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듣고 방문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톡&톡에서 신흥초등학교 교장이 직접 참석해, 학교 앞 스쿨존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경찰서 등 교통 관계기관과 협의 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해당 부서(교통행정과)는 군산경찰서와 협의 후 신흥초등학교 주변 3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를 위한 공사를 지난 11일 추진 완료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톡&톡에서는 수송동에 거주하는 양모(56)씨가 한라비발디 2단지 정문 앞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대안으로 매우 좋은 의견이라며, 경찰서 심의 등 절차를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다. 이러한 시민과의 적극 현장 소통으로 29일부터 월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 한라비발디 1단지·2단지 사거리의 동시보행신호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동시보행신호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나운3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톡&톡에서도 부곡로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상습 침수 예방 공사 건의에 대해, 대규모 예산투입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장기 과제로 시에서 책임지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현장에서 직접 답변했다. 더불어, 미룡주공1단지 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며, 전북대병원의 추진상황도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산=이재춘 기자

야생 차나무 군락지 '인기'

익산 웅포면에 위치… 차 문화 체험행사 열려

익산시 웅포면에 위치한 국내 최북단 야생 차나무 군락지가 감성 이색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생차군락지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전망과 숲속에 조용히 쉼터를 제공하는 산림문화체험관이 방문객들의 편의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26일 웅포면 산림문화체험관에서 '최북단 야생 녹차 체험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산림조합이 주관해 '대한민국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의 상징과 웅포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차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속이라는 자연에서 일상의 피로를 완화하고, 차 문화 체험으로 힐링 시간을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사전접수를 통해 참가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녹찻잎 따기부터 직접 차를 만들어 시음하는 제다·다도 체험을 하고 녹차 화분·디저트 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을 즐기며 '야생 녹차'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KBS 가요무대' 6월 8일 월명 경기장 개최

군산시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KBS 한국방송공사가 협찬하는 'KBS 가요무대'가 오는 6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군산 월명 종합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KBS 가요무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을 염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무대는 대표 MC 김동건이 사회를 맡고 김연자, 김성환, 현숙, 김용임, 송대관, 박군, 박상철, 금잔디, 양지은, 윤수현, 김태연, 박정식, 강혜연, 문연주, 조명섭, 배일호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단,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출연진은 바뀔 수 있다.

행사의 초대권 배부는 오는 31일부터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KBS 가요무대를 개최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2023년 서울국제 식품 산업대전 참가

익산시가 국내외 식품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을 선보이며 판로 확대에 나섰다.

시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2023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익산시 농·특산물 가공제품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일산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리며 서울국제식품전(국내관, 국제관) 및 식품기기전 등 식품산업 관련 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식품업계 간의 교류와 판로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시는 농·특산물 가공제품 홍보관을 통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소규모 가공업체 등 18개 업체의 가공제품(과채주스, 잼, 분말 및 기름, 보리빵 등 60여개 품목)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 등을 병행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등록 '시동'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4~2026년 단계적 정원조성

익산시가 국내 대표 국가정원 도약을 위해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등록'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는 용안생태습지를 다양한 테마속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용역사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금강 용안생태습지의 탁월한 자연조건을 활용해 지방정원 및 추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사업의 핵심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68ha의 넓은 하천구역에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주제별 차별화된 체류형 프로그램을 접목해 새로운 관광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조성, 경관시설 확충보완, 체험 및 편의시설, 초화류 식재 등을 조성해 지방정원을 운영(3년간)하고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생태자원 활용, 다채로운 체험활동 공간,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추진 등도 면밀히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용안생태습지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토대로 역사·문화 및 자연 생태적 가치가 있다"며 "하천구역의 새로운 활용성을 제시해 전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용안생태습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40여만 평의 물억새 군락지로 알려졌으며 2020년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의회가 선정한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뽑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호남제주전북R-WeSET, 청소년상상학교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호남제주권역전북지역 R-WeSET사업단(단장 김석순 교수: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이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8월 08일까지 '2023 청소년상상학교'를 개최한다.

올해 4년차인 '청소년상상학교' 프로그램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원하고 호남제주권역전북지역R-WeSET사업단이 주관하며, 인문·사회·이공 분야의 특강 및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 인류전반에 대한 미래비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듣고 토론, 발표해보는 특강형과 탐구형으로 나뉜다.

특강형은 전북지역의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되며 7월 26일 이현중 군산대 교수(슈퍼 히어로 인문학)를 시작으로 △이유리 프리랜서 작가(빈센트 반고흐의 마지막 그림) △박만호 전북과학고 교사(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이공계리더 정신함양 및 진로 탐색) △김종우 MBC PD(새로운 기술로 상상하기) △오경택 전주성심여고 교사(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 탐색) △박준영 변호사(다시 쓰는 우리들의 변호사) △이다혜 씨네21 편집팀장(진로를 고민할 때 생각해야 할 것들) △박병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장(자연과 인간의 공존) △권혜수 전주사대부고 교사(민주주의의 시작,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이은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진실을 밝히는 유전자의 힘) △이현주 남원서진여고 교사(작은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의 다채로운 분야로 구성되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부처단계 막바지 총력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단계 막바지 설득활동을 벌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군산항 항로 유지준설 확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등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반영과 추진 동향을 살피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사업의 경우 몇 년 간의 두드림 끝에 얻어낸 연도 직항로 노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여객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 여객선 대체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더불어, 수심 부족 문제로 항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군산항 문제를 피력하고 항로 유지준설량의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와 연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해 △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사업은 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 지원을 위한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구간 사업구역의 예산반영을 요청, 군산 관련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활력 찾아

익산시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나선다.

시는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른 급식 준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농촌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보다 1,600만원을 증액한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5개 마을을 지원한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농업인 및 농업인 가족 포함하여 20명 이상 참여하는 농촌지역 마을을 사업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마을은 마을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40일간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마을당 32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